

기고

### 주유소에서 태우는 담배, 이래도 태우시겠습니까?

박철우 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많이 듣고 사용하는 속담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속담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과 잘 들어 맞는 말이며, 이를 '안전불감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80, 90년대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인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부터 위험상황을 빨리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던 정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까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고이며,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줄일 수 있었던 사고들이며 즉, 인재(人災),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사고들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셀프주유소에서 자신의 차에 주유를 하던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파되는 일이 있었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이며, 그 유증기가 담뱃불 등 작은 불씨와 맞닿으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주유소 화재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로, 여러 화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유소 내 흡연이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단순히 흡연자 한 사람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유소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유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인 것이다.

현재 주유취급소 내 흡연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해당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6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우리는 항상 해 오던 일, 행동이 익숙하다보니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무시하다가 발생하지 않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재난을 크게 키우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는 개인의 기호로 볼 수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 처벌기준을 알고, 적어도 주유취급소, 급연구역에서는 잠시만 참고 안전한 장소,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지킴으로써 위험에 무감각한 대한민국이 아닌, 안전에 예민한, 안전이 당연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등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칼럼

### 경청하는 귀가 성공하게 한다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경청(傾聽)이란 상대가 하는 말을 집중하여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한다. 공자는 '말하는 데 3년 걸리지만, 듣는 법을 터득한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하였다.

'경청'이라는 책이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것만 봐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지 알 수 있다. 데일 카네기의名著 '인생론 10부작'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이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병희, 이창희, 이건희 삼 형제에 대한 일화가 있다. 병석에 누운 이병철 회장에게 기자가 질문했다. '왜 3남인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이병철 회장은 짧게 대답했다. "건희는 <듣는 귀>가 있어서!"

3남인 이건희 회장이 장남과 차남을 제치고 삼성의 후계자가 된 이유가 그것 한 가지뿐인 건 아니겠지만,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게 인정받은 것만은 분명할 것 같다.

가정이나 학교도 마찬가지다. 아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유능한 남편이고,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내가 현명한 아내다. 상대가 하는 말에 경청하면 상대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데 보람을 느끼며 진속해진다. 그래서 초면의 사람에게 그는 말을 하게 하고 끝까지 들어 주는 것이라 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강의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문제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필수 과정이다.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보다 상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능력이고 삶의 기술이다. 조물주가 귀를 두 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 만드신 이유도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라고 여겨진다.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짓기로 되어

있는데 듣기 지도 과정에서 학년 단계별로 경청하는 기본자세와 태도에 대한 지도에 소홀함이 없이 지도해야 하며, 특히 말을 들을 때는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경청하게 해야 한다.

대인 관계에서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겸손하게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의 좌우명은 경청이었다.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항상 겸손하고 귀를 기울여 작은 소리도 들어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불만은 작은 소리에도 있고 큰 소리에도 있으므로 경청하여 욕구불만이 어디서 나오지를 간파하여 지도자는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민선 단체장은 당선만 되면 비서실이나 대변인실에 시민 자연인들의 접근을 엄격히 규제하며 벽을 쌓고 있다. 선거 때 겸손과 경청은 사라지고 권위주의적 권좌를 누리고 있는 느낌이 들게 한다. 오늘날은 정보화 시대인데 단체장이 자기의 주변에 인맥의 답을 쌓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보에 늦어진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필자는 제8기 단체장 취임 후 단체장에게 전할 정보가 있어 비서실이나 대변인실을 통해 만나려 해도 여가지 핑계를 대서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면담은 생각도 못 한다. 이것이 민선 8기 단체장들의 변화된 모습의 소통 행태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신체 각 부분이 노쇠해지는데 청력이 떨어져 듣기 못하는 것은 보청기가 등장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난청자를 위해 청력 장애자가 보청기를 구입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난청자는 청력검사를 하여 장애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원으로 보청기를 구입 해 착용하여 인간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만, 경청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귀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청할 수 있는 두 귀를 있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경청하는 귀가 나를 성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경청을 실천해야 한다.

기고

### 세계 마약 퇴치의 날 안전한 사회가 되는 전환점으로 만들자

허정호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6. 26.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다. 이 날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기념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전세계에서는 마약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강남 학원가에 마약음료가 퍼지고, 필로폰을 공급하는 고교생이 검거되는 등 마약 범죄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마약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



고 싶다. 청소년기부터 성인까지 교육의 대상은 쉽게 한정되지 않으며, 꾸준한 정보 제공과 대화를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의 의미를 두고, 국민 각자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가족 학교 지역사회, 언론 등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심되는 유통 정보를 발견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태도가 바로 마약 퇴치의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 안전한 사회가 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견된 침묵으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